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과 민족적 차이*

김 현 숙**

◀ 요약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민족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참여 모델<모델1>에서 인적 자본의 특성 중에서는 민족집단, 연령, 교육수준, 국적 취득, 한국어 수준 등이, 가구 특성 중에서는 9세 미만 자녀 양육 지원, 배우자 소득이, 문화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의 성역할태도(1), (2), (3) 등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참여 모델 <모델 2-6>에서는 인적 자본의 특성(연령, 교육수준, 국적 취득, 일자리 교육, 한국어 수준)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민족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 중 9세 미만 자녀의 유무와 주양육자는 공통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 소득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요인 중 배우자의 성역할태도(1)은 공통 영향요인이었으나, 배우자의 성역할태도(2)는 한국계 중국, 베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2011601).

**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연구교수(illsuk94@hanmail.net)

트남 출신 여성에게만, 배우자의 성역할태도(3)는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고,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 참여, 인적 자본, 가구 특성, 민족별 차이

1. 문제제기

결혼이민여성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관심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결혼이민여성의 가구 빈곤이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주변화될수록 향후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양인숙 · 민무숙, 2010),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다문화가정의 빈곤 문제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 가구가 40.3%에 이르고, 이들의 한국인 배우자 기초수급자는 일반국민수급자보다 1.7배 많고, 이들 중 35%가 장기수급자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가구는 내국인 가구보다 더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부분 결혼이민여성들 개개인이 경험하는 내면적 혼란과 문화갈등 혹은 부부나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적응 및 차별, 폭력 등 인권과 복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박미은 · 신희정 · 이미림, 2012)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이들에 대한 경제적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이민자들의 이민 배경에는 자신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민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이민자는 경제적 행위자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민자의 적응 수준은 경제적 성취를 통해 나타난다(Zhou, 1997; 최혜지, 2009; 박능후 · 선남이, 2010)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이들의 이민사회의 적응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결혼이민여성 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들의 경제적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가족적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혼이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연구들(양인숙·김선훈, 2011; 안수영·임우연, 2011; 강혜정·이규용, 2012; 이은희·이은미, 2012; 이태정·이용수·김명수, 2013)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그리고 가구의 특성 측면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거주기간, 가구소득, 국적취득, 한국어 능력, 취업교육 참여 여부, 상대적 생활수준 격차감 등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취학 전 자녀의 존재, 사회적 차별,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 등은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서 내국인 기혼 여성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요인들의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들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묶어서 민족 집단별로 경제활동 참여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의 취업률이 44.7%인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은 21.9%로 민족집단에 따라 취업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이들 국가 간 취업률은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민족집단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있다. 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최근 연구(Husted et al., 2000; Rebhun, 2010)에 의하면, 인종적, 민족적 집단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른 것은 이민자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가구 특성 이외에도 배우자의 부인에 대한 취업 태도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민족집단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서 선행연구의 기존 요인과 더불어 문화 요인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민족집단별 결혼이민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결혼이민여성의 인력개발정책을 위해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의미

이민자는 종종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제적 행위자”로 여겨진다 (Stier,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 특히 결혼한 이민여성은 경제적 행위자라기보다는 남편의 동반자 혹은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만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종종 비가시화되어 왔다.

동화적 관점에 의하면, 취업은 이민 여성의 적응 경험에 매우 중요하다(Gilbertson, 1995). 취업이 개인의 삶과 생활방식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Collins, 1988)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의 지위와 성취는 이민사회에서 그들의 정착과 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이기(Foroutan, 2008) 때문이다. 게다가 서구의 경험에서 이민자가족의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왔다. 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Long, 1980; Stier, 1991)에 의하면, 결혼한 이민여성은 정착 초기에 남편이 인적자본을 위해 교육에 전념하는 동안 이민자 가구의 실질적 가장이었으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여성은 가구의 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다.

국내에서 이민자가정의 경제활동을 다룬 연구들이 아직 보고되지 않지만, 결혼이민 여성의 경제활동을 다룬 연구들에서 이들의 취업은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능후·선남이, 2010; 배경희·서인숙, 2011), 이들의 취업 배경이 생활비 보충, 가족의 생계 유지, 자녀의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이유(장서영 외, 2010)인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거나, 가구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있어 경제활동 참여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이 단지 경제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인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강이수·신경아, 2009, 박미은 외 2012 재인용)는 점이다.

2)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민족적 차이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최근으로 올수록 차츰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여성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률은 39.7%이었고,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37%로 오히려 떨어졌으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53.0%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비해 무려 16% 증가하였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혼이민여성의 증가함에 따라 이들도 차츰 한국의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민족집단별 노동시장 참여에는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여성이 56.9%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한국계 중국 44.7%, 필리핀 40.5%, 태국 34.7%, 중국 34.5% 등으로 이들 지역 출신 여성들이 평균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베트남(21.9%), 캄보디아(11.7%) 출신 여성은 평균 이하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는 있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한국계 중국(63.2%), 태국(57.1%) 출신 여성은 평균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중국(55.9%), 몽골(53.0%), 필리핀(50.5%), 베트남(42.2%), 일본(41.8%), 대만·홍콩(37.2%), 북미·호주·서유럽(36.5%), 캄보디아(30.9%) 출신 여성은 평균 이하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요인과 민족적 차이

(1) 인적 자본 요인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민족집단별 차이를 다룬 연구들(Kahn & Whitley, 1996; England et al., 2004)은 민족집단별 경제활동 참여의 불균형이 주로 이들의 인적자본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인적자본이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인적 특성으로, 이민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적 자본은 연령, 언어 수준, 교육 수준, 기술, 시민권 등이다. 우선 보이드(Boyd, 1982)에 의하면, 이민 당시의 연령은 이민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에 매우 밀

접하게 관련된다 고 하였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내국인과 비슷한 노동시장 참여를 보인다고 하였다. 둘째,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모국의 기술과 이민사회의 기술이 유사할수록, 이민자의 모국에서의 기술이 이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일수록 그리고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보다 노동시장의 참여와 임금수준이 더 높다(Duleep & Sanders, 1993)고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사례연구에서도 본국에서 취업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수영·임우연, 2011). 셋째, 인적자본의 지표로서 교육수준은 이민자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쉽게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Portes & Rumbaut, 2001). 선행연구에 의하면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노동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Portes & Rumbaut, 2001)고 한다. 넷째, 언어 능력(Language proficiency)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특히 주변적 일자리가 아닌 주류사회의 일자리를 찾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안수영·임우연(2011)의 연구에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리드(Read, 2004)의 연구에서도 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 다섯째,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이민사회에 필요한 문화, 언어, 교육 자격, 그리고 노동경험 등을 취득하게(Heath et al., 2008) 되며, 이에 따라 내국인과 이민자, 그리고 이민자 집단 간 노동시장의 격차는 감소할 수 있다(Chiswick & Miller, 1988). 여섯째, 시민권 취득은 이민자의 경제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DeVoretz & Pivnenko, 2005; Chiswick & Miller, 2008).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보다 더 높은 임금 상승을 보이며, 더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더 나은 임금 직종과 분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 온 여성 이민자들의 고용과 임금상승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Gathmann, 2015)고 한다.

(2) 가구 특성 요인

결혼한 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민족적 차이에서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가구 특성 요인이다. 우선 어린 자녀의 존재와 규모는 결혼한 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ahanec & Mendola, 2007). 그동안 결혼한 이민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는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집단에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25~30%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둘째, 자녀의 존재와 규모와 상관없이 자녀를 돌볼 가족의 지지체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이다. 즉, 결혼한 이민여성은 친족 구성원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다(MacPherson & Stewart, 1989; Perez, 2001).

한편 가구의 재정적 자원은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Stier & Tienda, 1992). 서구사회에서도 여성노동의 공급은 가구소득 또는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elmlee, 1995). 특히 우리나라처럼 노동영역에 대한 일차적 담당자가 남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자신들의 노동영역에 대한 참여 여부를 떠나 남편으로 대표되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조혜선, 2002).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를 연구한 이태정 외(2013)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의 월평균소득이 클수록 저숙련 직종에 취업하기보다는 미취업 상태를 선택한다고 한다.

(3) 문화 요인

한편 최근 결혼한 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서 민족적/인종적 차이를 다룬 연구들(Read, 2004; Read & Cohen, 2007; Blau, Kahn, & Papps, 2011; Frank & Hou, 2013)은 인적 자본이나 가구의 특성이 아닌 문화적 특성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이민여성이 낮은 영어 수준에 비해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며(Min, 1997), 이란과 아랍 이민 여성은 높은 교육수준과 낮은 출산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낮다(Dallalfar, 1994). 이러한 상황은 인적자본이나 가구의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레이머(Reimer, 1985)에 의하면, 이민자 민족집단은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가정 밖에서 일하는 아내와 어머니, 자녀에 대한 태도, 가족크기와 구조, 그리고 여성의 교육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혼한 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리드(Read, 2004)는 미국 센서스 데이터와 아랍계 미국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다른 이민자 집단들보다 아랍계 미국인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가 현격히 낮은 것은 여성의 경제 활동보다 가족 부양 의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도록 고무하는 민족적, 종교적 네트워크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허윤선(2013)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미국 노동시장 참여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민여성의 인적자본요소(human capital factors)뿐만 아니라 송출국의 성평등도(gender equality)가 동아시아 이민여성들의 노동시장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첫째, 연령, 교육수준, 국적 취득 여부, 일자리 교육 여부 등 인적자본 요인, 둘째, 어린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주양육자, 배우자 소득 등 가구특성 요인, 마지막으로 부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등 문화요인으로 나누고, 이러한 요인들이 각 민족집단별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이 자료에는 전국다문화가구 15,341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15,001명(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 배우자 13,859명(여성 2,278명, 남성 11,581명), 만 9-24세 자녀 4,775명(여성 2,271명, 남성 2,50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가구 구성과 특성,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 서비스, 경제활동상태, 자녀정보 등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는 가구 데이터, 가구원 데이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데이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데이터 등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결합(pooling)하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15,001명)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중 결혼이민여성(12,531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연

구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요인을 다루려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 자료 중 혼인상태에서 미혼으로 표기된 자료를 제외하였다(12,324명). 그리고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요인에서 민족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결혼이민여성 중 비중이 큰 상위 5개 민족 집단(중국(2,199), 한국계 중국(2,201), 일본(995), 베트남(2,062), 필리핀(1,517))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총 8,974명).

2) 측정

(1) 종속 변수: 경제활동 참여 여부

본 연구의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이며, 지난 1주일(2012.7. 1-7. 7) 동안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일을 한 것으로 기준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참여(1)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던 경우나 일이 없는 경우는 (2) 미참여(0)로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본 요인과 가구 요인, 문화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첫째, 인적자본 요인은 출신민족, 연령, 교육수준, 한국 국적 취득, 일자리 교육 및 연계 서비스 경험, 한국어 수준 등이다. 출신민족은 결혼이민여성 중 비중이 큰 상위 5개 민족 집단을 선정하여, ① 중국, ② 한국계 중국, ③ 일본, ④ 베트남, ⑤ 필리핀 등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은 원자료에는 년단위로 측정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임신 출산기인 ① 15세~34세 연령집단, ② 35세~44세 연령집단, ③ 45세 이상 연령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원자료에서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졸(4년제 미만), 대학교졸(4년제 이상), 대학원졸로 측정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졸업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한국 국적 취득은 원자료와 마찬가지로 ① 예(취득), ② 아니오(미취득)로 범주화하였다. 일자리 교육 및 연계 서비스 경험은 원자료에서는 없다(0), 있다(1)로 측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① 있다, ②없다로 역처리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 수준은 원자료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으로 구분하여, 매우 잘한다(1), 잘한다(2), 보통이다(3), 못한다(4), 매우 못한다(5) 로 측

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변수만을 사용하였으며, 수준별 비교를 3개 집단(매우 잘한다와 잘한다를 ① 잘함으로, 보통이다를 ② 보통으로,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를 ③ 못함)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가구 요인은 혼인상태, 어린 자녀 유무와 주양육자,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등이 다. 혼인상태는 원자료에서는 미혼(1), 배우자있음(2), 사별(3), 이혼·별거(4)로 측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 자료를 제외한 후 배우자 유무로 범주화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사별, 별거, 이혼을 포함하였다. 자녀는 9세 미만 자녀의 유무와 주양육자는 ① 시부모 등 가족, ② 유치원 등 시설, ③ 부부, ④ 자녀 없음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배우자의 소득은 ① 150만 원 미만, ② 150~249만 원, ③ 250~349만 원, ④ 350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문화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로,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관련 태도만을 사용하였다.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중 배우자 경제활동태도 관련 변수는 1)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 2)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 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일하는 것에 찬성한다 등으로, 각각 원자료에서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측정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 등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는 사건을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로지스틱 변화를 고려하는 로짓 분석(logit analysis)을 사용하여, 인적자본, 가구특성, 문화특성이 각 민족집단별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인적 자원 요인으로 민족집단, 연령, 교육수준, 한국국적 취득유무,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 한국어 수준 등 이민 이전 인적자본과 이민 후 인적자본의 특징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민족집단은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이 2,201명(24.5%)으로 가장 많고, 일본 995명(11.1%)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 연령은 1.76(0.81)로 약 37세 정도였으며, 34세 이하가 6,294명(47.7%)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교육수준은 1.91(0.73)로 고졸수준에 약간 못 미치며, 고졸 이하가 7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 취득 여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4,948명(55.1%)로 취득한 경우보다 약간 더 많았다.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8,254명(92.0%)으로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은 4,498명(50.1%)이 잘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어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가 82.4%이었다.

둘째, 가구 요인으로 혼인상태, 9세 미만 자녀 유무, 주양육자, 배우자 소득 등을 제시하였다. 혼인상태는 연구 대상자의 8,449명(94.1%)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고, 9세 미만 자녀 유무는 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가 4,637명(51.7%)으로 9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약간 더 많았다. 9세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는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2,776명(59.9%)로 가장 많았고, 부부인 경우가 1,576명(34.0%), 시부모 등 친척인 경우가 285명(6.1%)이었다. 배우자 소득은 150~249만 원인 경우가 3,290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249만 원 이하 소득이 전체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 요인으로,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 중 경제활동 관련 태도를 제시하였다. 배우자성역할태도(1)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인데, ‘그렇다’가 35.7%, ‘그렇지 않다’가 32.6%, ‘보통이다’ 31.7%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배우자성역할태도(2)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인데, ‘그렇다’가 49.7%, ‘보통이다’가 31.0%, ‘그렇지 않다’가 19.4%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었다. 배우자성역할태도(3)는 ‘외국

인 배우자가 일하는 것에 찬성한다'인데, '그렇다'가 58.0%, '보통이다'가 29.6%, '그렇지 않다'가 12.0%로, 외국인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인	변수	범주	빈도(%)	평균(표준편차)	
인적자본요인	민족집단	중국	2,199(24.5)	1.76(0.81)	
		한국계중국	2,201(24.5)		
		일본	995(11.1)		
		베트남	2,062(23.0)		
		필리핀	1,517(16.9)		
	연령	≤ 34	6,294(47.7)		
		35-44	3,485(28.7)		
		≥ 45	2,545(23.6)		
	교육수준	≤ 중졸	2,818(31.4)		1.91(0.73)
		고졸	4,125(46.0)		
		≥ 대졸	2,031(22.6)		
	한국국적	취득	4,026(44.9)		1.55(0.50)
미취득		4,948(55.1)			
일자리 교육/연계 경험	있다	720(8.0)	1.92(0.27)		
	없다	8,254(92.0)			
한국어수준	잘함	4,498(50.1)	1.67(0.76)		
	보통	2,901(32.3)			
	못함	1,575(17.6)			
가구요인	혼인상태	유배우	8,449(94.1)	1.06(0.23)	
		이혼/사별/별거	525(5.9)		
	9세 미만 자녀 유무	있다	4,637(51.7)	1.48(0.50)	
		없다	4,337(48.3)		
	주양육자	시부모 등 가족	285(6.1)	2.28(0.57)	
		유치원 등 시설	2,776(59.9)		
		부부	1,576(34.0)		
	배우자소득	≤ 150만 원	2,256(30.4)	2.03(0.89)	
		150~249만 원	3,290(44.4)		
		250~349만 원	1,278(17.2)		
≥ 350만 원		586(7.9)			
문화 요인	배우자성역할태도(1)	그렇다	2,932(35.7)	1.97(0.83)	
		보통이다	2,608(31.7)		
		그렇지 않다	2,675(32.6)		
	배우자성역할태도(2)	그렇다	4,080(49.7)	1.70(0.77)	
		보통이다	2,545(31.0)		
		그렇지 않다	1,590(19.4)		
	배우자성역할태도(3)	그렇다	4,804(58.5)	1.53(0.70)	
		보통이다	2,428(29.6)		
		그렇지 않다	983(12.0)		

주) 배우자성역할태도 (1)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 (2)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 (3)외국인 배우자가 일하는 것에 찬성한다.

2) 민족집단별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의 차이

[표 2]는 민족집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및 참여 영향 요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이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chi^2=208.46, p<.001$), 중국, 한국계 중국, 그리고 필리핀 출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일본과 베트남 출신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본 요인 중 연령 집단은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chi^2=2990.5, p<.001$),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은 34세 이하 연령이 많고, 한국계 중국과 일본 출신 여성은 45세 이상 연령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chi^2=2325.66, p<.001$), 베트남 출신 여성은 중졸, 중국과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은 고졸,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대졸 이상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취득 여부는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chi^2=1381.80, p<.001$),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일수록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은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chi^2=64.95, p<.001$), 모든 민족집단에서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은 적었다. 일자리 연계 경험은 일본 출신 여성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출신 여성이 가장 적었다. 한국어 수준은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374.72, p<.001$), 중국, 한국계 중국, 그리고 일본 출신 여성은 한국어 수준이 '잘함'이 많은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보통'인 경우가 많다.

가구요인 중 혼인상태는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chi^2=234.19, p<.001$), 대부분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가장 높았고,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이 가장 낮았다. 만 9세 미만 자녀 유무도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1007.55, p<.001$),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출신 여성이 9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이 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9세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 역시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chi^2=26.79, p<.01$), 모든 민족집단에서 주양육자가 유치원 등 시설인 경우가 많았다. 시부모 등 친척이 주양육자인 경우는 중국 출신 여성이, 유치원 등 시설이 주양육자인 경우는 필리핀 출신 여성이 그리고 부부가 주양육자인

경우는 일본 출신 여성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 소득 역시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86.68, p<.001$), 배우자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필리핀 출신 여성에게서, 150-249만 원 미만인 경우는 베트남 출신 여성에게서 그리고 250-349만 원과 3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일본 출신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문화요인 중 배우자성역할태도(1)은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chi^2=20.61, p<.01$),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에 배우자의 태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민족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중국 출신 여성의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배우자성역할태도(2)는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chi^2=24.05, p<.0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 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에 모든 민족집단의 배우자의 태도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본 출신 여성의 배우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우자성역할태도(3)은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8.14, p<.001$), 모든 민족집단의 배우자의 태도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중 필리핀 출신 여성의 배우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2] 민족집단별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단위: %)

		중국 n=2,199	중국(한국계) n=2201	일본 n=995	베트남 n=2,062	필리핀 n=1,517	χ^2	
경제활동	참여	55.3	63.1	44.7	42.8	50.8	208.46*** df=4	
	미참여	44.7	36.9	55.3	57.2	49.2		
인 적 자 본 요 인	연령	≤34	36.2	23.5	14.7	92.2	60.7	2990.50*** df=8
		35-44	34.9	37.2	39.1	6.8	30.1	
		≥45	28.9	39.3	46.2	0.9	9.2	
		평균	39.9	43.0	43.3	26.6	33.0	
	교육 수준	<중졸	33.3	33.9	2.1	57.7	8.4	2325.66*** df=8
		고졸	48.8	52.4	41.5	38.3	45.7	
		≥대졸	17.8	13.6	56.4	4.0	45.9	
	한국 국적	평균	1.84(0.70)	1.80(0.66)	2.54(0.54)	1.46(0.57)	2.38(0.63)	1381.80*** df=4
		취득 미취득	49.7 50.3	70.3 29.7	7.3 92.7	28.9 71.1	47.2 52.8	
	일자리 교육경험	있다	7.6	6.7	12.5	5.6	10.9	64.95*** df=4
		없다	92.4	93.3	87.5	94.4	89.1	
	한국어 수준	잘함	58.2	86.3	52.3	20.5	24.9	2374.72*** df=8
		보통	26.4	11.4	35.5	48.3	47.6	
		못함	15.4	2.4	12.3	31.2	27.6	

			중국 n=2,199	중국(한국계) n=2201	일본 n=995	베트남 n=2,062	필리핀 n=1,517	χ^2
가 구 요 인	혼인 상태	유배우	91.8	89.1	97.6	98.7	96.4	234.19*** df=4
		이혼, 별거, 사별	8.2	10.9	2.4	1.3	3.6	
	만 9세 미만 자녀	있음	39.6	34.3	46.4	76.4	64.2	1007.55*** df=4
		없음	60.4	65.7	53.6	23.6	35.8	
	주양육자	사례 수	n=870	n=755	n=464	n=1,576	n=974	26.79** df=8
		시부모 등	7.6	7.2	3.7	6.5	4.6	
		유치원 등	58.2	62.4	56.5	58.4	63.4	
		부부	34.3	30.5	39.8	35.1	31.9	
	배우자 소득 (단위: 만 원)	사례수	n=1,751	n=1,631	n=862	n=1,853	n=1,308	186.68*** df=12
		<150	27.0	29.4	25.8	31.9	37.4	
150-249		43.7	45.4	36.8	47.6	44.5		
250-349		18.8	18.5	23.0	15.7	12.0		
≥350		10.4	6.6	14.5	4.9	6.1		
	평균	2.13(0.93)	2.02(0.86)	2.26(1.00)	1.94(0.82)	1.87(0.85)		
문 화 요 인	성역할 태도(1)	사례수	n=1,959	n=1,883	n=949	n=1,996	n=1,428	20.61** df=8
		그렇함	33.0	35.3	37.7	38.3	35.0	
		보통	31.4	31.8	32.1	30.5	33.5	
		그렇지 않음	35.6	32.9	30.1	31.2	31.4	
		평균	2.03(0.83)	1.98(0.83)	1.92(0.82)	1.93(0.83)	1.96(0.81)	
문 화 요 인	성역할 태도(2)	그렇함	46.2	50.9	53.1	50.7	48.9	24.05** df=8
		보통	32.1	31.9	28.1	29.6	32.1	
		그렇지 않음	21.7	17.2	18.8	19.7	18.9	
		평균	1.75(0.79)	1.66(0.75)	1.66(0.78)	1.69(0.78)	1.70(0.77)	
	성역할 태도(3)	그렇함	59.5	57.3	57.5	56.0	62.8	28.14*** df=8
		보통	28.8	31.1	31.4	29.7	27.2	
		그렇지 않음	11.7	11.6	11.1	14.3	10.0	
		평균	1.52(0.70)	1.54(0.69)	1.54(0.69)	1.58(0.73)	1.47(0.70)	

주) 성역할태도 (1)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 (2)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 (3)외국인 배우자가 일하는 것에 찬성한다.

주) *=p<0.05, **=p<0.01, ***=p<0.001

3) 민족집단별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요인

[표 3]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들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모델들에서 준거집단으로 사용되었다.

전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델1에서, 인적 자본 요인 중 민족집단에서 필리핀 출신 여성은 일본 출신 여성보다 1.706배(p<.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요인에서 45세 이상 연령 집단은 34세 이하 연령집단과 35~44

세 연령집단보다 각각 2.57배($p<.001$), 1.333배($p<.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 대졸 이상 집단은 고졸 집단보다 1.176배($p<.05$)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 유무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47배($p<.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수준에서 한국어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1.685배($p<.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어 수준이 보통인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1.451배($p<.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요인 중 9세 미만 자녀 유무와 주양육자에서 시부모 등 친척으로부터 자녀 양육 지원을 받는 집단은 9세 미만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2.091배($p<.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치원 등 시설을 통해 자녀 양육을 지원받는 집단이나 부부가 자녀를 돌보는 집단의 경우 오히려 9세 미만 자녀가 없는 집단이 각각 1.264배($p<.001$), 6.993배($p<.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소득에서 배우자 소득이 150만 원 미만 집단은 350만 원 이상 집단보다 2.033배($p<.001$), 150-249만 원 집단은 350만 원 이상 집단보다 1.428배($p<.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요인 중 배우자의 성역할태도(1)에서 ‘남편은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가 1단계 올라갈 때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1.383배($p<.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성역할태도(2)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가 1단계 올라갈 때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1.181배($p<.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성역할태도(3)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일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1단계 내려갈 때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1.307배($p<.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족집단별<모델2~모델6>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우선 인적 자본 중 연령은 베트남을 제외하고 모든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결혼이민여성 집단에서 45세 이상 연령집단은 34세 이하 연령 집단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2.083배($p<.001$), 한국계 중국 2.277배($p<.001$), 일본 2.958배($p<.001$), 필리핀 1.904배($p<.05$) 이었다. 그리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45세 이상 연령집단은 35-44세 연령 집단보다

1.773배($p < .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일본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 중 대졸 이상 집단은 중졸 이하 집단보다는 5.154배($p < .05$), 고졸 집단보다는 1.402배($p < .05$)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 중 대졸 이상 집단은 고졸 집단보다 1.547배($p < .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취득 유무는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에서만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을 취득할수록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각각 2.095배($p < .001$), 1.97배($p < .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교육 및 연계 서비스 이용 경험은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자리 교육 및 연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각각 1.872배($p < .01$), 1.686배($p < .05$)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계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여성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 중 한국어를 잘하는 집단은 못하는 집단보다 각각 1.501배($p < .05$), 1.988배($p < .01$), 1.59배($p < .01$), 2.028배($p < .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 중 한국어 수준이 보통인 집단은 못하는 집단보다 각각 1.399배($p < .05$), 1.418배($p < .05$)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요인 중 9세 미만 자녀 유무와 자녀의 양육 지원은 모든 결혼이민여성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 등에 의한 자녀 양육 지원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부모의 양육지원이 있는 경우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2.039배($p < .05$), 2.633배($p < .001$), 2.301배($p < .05$)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등 시설에 의한 양육 지원은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자녀가 없는 집단이 각각 1.587배($p < .01$), 1.661배($p < .01$), 1.988배($p < .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자녀의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세 미만 자녀가 없는 집단이 부부가 주양육자인 집단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8.695배($p<.001$), 한국계 중국 11.764배($p<.001$), 일본 3.571배($p<.001$), 베트남 6.896배($p<.001$), 필리핀 4.587배($p<.001$) 등이었다.

배우자 소득은 한국계 중국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결혼이민여성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집단은 35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2.275배($p<.001$), 150-250만 원인 집단은 35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1.611배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집단은 35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5.502배($p<.001$), 150-250만 원인 집단은 35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2.490배($p<.0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집단은 35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2.513배($p<.01$)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요인 중 배우자 성역할 태도(1)은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가 1단위 증가할 때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각각 0.764배($p<.001$), 0.755배($p<.001$), 0.615배($p<.001$), 0.710배($p<.001$), 0.697배($p<.001$)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성역할태도(2)는 한국계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 아이 있는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각각 0.752배($p<.01$), 0.791배($p<.01$)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성역할태도(3)은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일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1단위가 증가할 때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각각 1.279배($p<.01$), 1.458배($p<.001$), 1.357배($p<.001$)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민족집단별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관련 요인들

		전체(모델1)		중국(모델2)		한국계 중국(모델3)	
		B(S.E.)	Exp(B)	B(S.E.)	Exp(B)	B(S.E.)	Exp(B)
인적 자 본 요 인	상수항	-.327(.183)	.721	.072(.395)	1.075	1.326(.558)*	3.766
	출신국(R: 필리핀)						
	중국	-.086(.091)	.918				
	한국계 중국	.025(.099)	1.025				
	일본	-.535(.114)***	.586				
	베트남	.183(.094)	1.201				
	연령(R: 45세 이상)						
	34세 이하	-.944(.094)***	.389	-.733(.173)***	.480	-.824(.188)***	.439
	35~44세	-.287(.085)**	.750	-.084(.159)	.919	.074(.157)	1.077
	교육수준 (R: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62(.087)	.940	.177(.163)	1.194	-.024(.190)	.976
	고졸	-.163(.072)*	.850	.107(.147)	1.113	.044(.172)	1.044
인적 자 본 요 인	국적취득 (R: 미취득)	.385(.063)***	1.470	.129(.126)	1.138	.171(.132)	1.187
	일자리교육 (R: 없다)	.176(.097)	1.193	-.342(.199)	.710	-.309(.219)	.734
	한국어수준 (R: 못함)						
	잘함	.522(.084)***	1.685	.406(.162)*	1.501	.282(.372)	1.326
	보통	.372(.079)***	1.451	.306(.169)	1.358	.113(.401)	1.119
가 구 요 인	9세 미만 자녀 보살핌(R: 자녀 없음)						
	시부모 등	.738(.155)***	2.091	.713(.315)*	2.039	.457(.381)	1.579
	유치원 등	-.235(.067)***	.791	-.463(.141)**	.630	-.507(.156)**	.602
	부부	-.1943(.092)***	.143	-.2161(.205)***	.115	-.2463(.232)***	.085
	배우자소득(R: 35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710(.109)***	2.033	.822(.204)***	2.275	.030(.262)	1.031
	150~249만 원	.356(.105)**	1.428	.477(.187)*	1.611	-.237(.249)	.789
250~349만 원	.042(.115)	1.043	.188(.208)	1.207	-.484(.268)	.616	
문 화 요 인	남녀의 공사영역구분	.324(.035)***	1.383	-.269(.073)***	.764	-.281(.077)***	.755
	미취학자녀 엄마의 경제활동	.166(.037)***	1.181	-.080(.075)	.923	-.285(.085)**	.752
	외국인아내의 경제활동	-.267(.039)***	.765	.246(.079)**	1.279	.377(.084)***	1.458

	전체(모델1)		중국(모델2)		한국계 중국(모델3)	
	B(S.E.)	Exp(B)	B(S.E.)	Exp(B)	B(S.E.)	Exp(B)
case	8,974		2,199		2,201	
χ^2	1876.893***		404.378***		410.866***	
-2LL	8393.794		2012.911		1748.553	
Nagelkerke R^2	.298		.275		.303	

*=p<.05, **=p<.01, ***p<.001

	일본(모델4)		베트남(모델5)		필리핀(모델6)		
	B(S.E.)	Exp(B)	B(S.E.)	Exp(B)	B(S.E.)	Exp(B)	
인적자본요인	상수항	-.275(.546)	.760	.124(.823)	1.132	.913(.525)	2.493
	출신국(R: 필리핀)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베트남						
	연령(R: 45세 이상)						
	34세 이하	-1.085(.267)***	.338	-1.022(.670)	.360	-.645(.269)*	.525
35~44세	-.572(.187)**	.564	-.549(.699)	.578	-.239(.265)	.788	
인적자본요인	교육수준(R: 대졸 이상)						
	중졸 이하	-1.639(.660)*	.194	.239(.301)	1.270	-.170(.238)	.844
	고졸	-.339(.168)*	.713	.083(.304)	1.087	-.437(.134)**	.646
	국적취득(R: 미취득)	.037(.335)	1.038	.740(.130)***	2.095	.678(.152)***	1.970
	일자리교육(R: 없다)	.415(.233)	1.514	.627(.241)**	1.872	.523(.214)*	1.686
	한국어수준(R: 못함)						
	잘함	.687(.264)**	1.988	.464(.163)**	1.590	.707(.189)***	2.028
	보통	.457(.272)	1.580	.335(.132)*	1.399	.350(.159)*	1.418
가구요인	9세 미만 자녀 보살핌(R: 자녀 없음)						
	시부모 등	.587(.666)	1.799	.968(.259)***	2.633	.833(.414)*	2.301
	유치원 등	-.688(.198)**	.503	.230(.138)	1.259	-.124(.148)	.883
	부부	-1.274(.241)***	.280	-1.934(.184)***	.145	-1.523(.200)***	.218
	배우자소득(R: 35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705(.277)***	5.502	.921(.294)**	2.513	.207(.283)	1.231
	150~249만 원	.912(.259)***	2.490	.552(.288)	1.737	.010(.278)	1.010
	250~349만 원	.443(.280)	1.558	.183(.311)	1.200	-.193(.321)	.824

		일본(모델4)		베트남(모델5)		필리핀(모델6)	
		B(S.E.)	Exp(B)	B(S.E.)	Exp(B)	B(S.E.)	Exp(B)
문화요인	남녀의 공사영역구분	-.485(.106)***	.615	-.343(.072)***	.710	-.362(.085)***	.697
	미취학자녀 엄마의 경제활동	-.021(.108)	.979	-.234(.074)**	.791	-.164(.088)	.849
	외국인아내의 경제활동	.221(.120)	1.247	.305(.081)***	1.357	.153(.099)	1.165
case		995		2,062		1,517	
χ^2		198.666***		538.673***		335.110***	
-2LL		984.222		1990.981		1477.475	
Nagelkerke R^2		.276		.339		.301	

*=p<.05, **=p<.01, ***p<.001

4. 결론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인적 자본 요인과 가구 요인 그리고 문화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리고 민족집단별로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카이 검정과 로짓분석을 하였다.

우선 전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참여 모델<모델1>에서는 인적 자본 요인 중에서는 민족집단, 연령, 교육수준, 국적 취득, 한국어 수준 등이, 가구 요인 중에서는 9세 미만 자녀 유무와 주양육자, 배우자 소득이, 문화 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성역할 태도(1), 배우자성역할태도(2), 배우자성역할태도(3) 등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참여 모델<모델 2~6>에서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들은 민족집단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본 요인 중 연령은 베트남 출신 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일본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취득과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은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은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요인 중에서 9세 미만 자녀 유무 및 주양육자는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소득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요인 중에서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1)은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배우자의 성역할태도(2)는 한국계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에게만, 배우자의 성역할태도(3)은 중국, 한국계 중국 그리고 베트남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집단은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적어도 필리핀 출신 여성은 일본 출신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필리핀 여성과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필리핀과 일본 출신 여성은 공통적으로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지만, 필리핀은 남편과 아내의 원가족이 모두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공유하는 양변제인 반면, 일본은 남편의 지위와 역할이 강한 부계제 전통을 가지고 있다(박희, 2002). 이러한 문화체계에서 필리핀 여성은 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나 형제를 돕기 위해 일을 하지만(김민정, 2002), 상대적으로 일본 여성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다. 이러한 문화적 태도가 한국으로의 이민 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 출신 여성은 통일교 등 특정 종교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많으며(양순미, 2012) 이러한 종교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다른 지역 출신 여성들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베트남 출신 여성을 제외하고, 선행연구(강혜정 · 이규용, 2012)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도 내국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출산, 육아가 끝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도 출산 및 양육기가 끝난 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수준은 고용가능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이지만(Mancinell et al., 2010),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일본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일본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요구하는 고임금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다른 민족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과 고용가능성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고용이 학력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적 취득은 다른 다민족국가들에서 이민자가 취업기회를 갖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는데(Gathmann, 2015), 본 연구에서 한국 국적 취득은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국적 취득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결정요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시민권 취득이 낮은 경우, 대개 주류사회의 진출보다는 자영업 등 민족 집단의 고용분야에 일하기 때문(Lee et al., 2014)이라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영업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연구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 출신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결정요인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중국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거의 비슷한 한국 국적을 취득율을 보이지만,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이 이들의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요인인 반면, 중국 출신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이를 위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중국 출신 여성이 필리핀 출신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적취득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며, 필리핀 출신 여성은 상대적으로 학력이나 국적 취득을 요구하는 고임금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 출신 여성의 경우 다른 지역 출신 여성에 비해 국적 취득이 낮은데, 이는 이들이 통일교(69.5%)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김승권 외, 2010), 특정 종교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환경을 수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며(양순미, 2012) 국적 취득을 늦추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장래에 일본에서의 취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은 전체 모델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족집단별 모델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현재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박재규, 2013; 이태정, 이용수, 김명수, 2013) 일자리 교육이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향후 일자리 교육 및 연계가 강화될 경우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제한적 언어 능력은 이민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양인숙 · 김선훈, 2011; 안수영 · 임우연, 2011; 강혜정 · 이규용, 2012; 이은희 · 이은미, 2012; 이태정 · 이용수 · 김명수, 2013)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수준은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 집단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며,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은 이미 한국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른 지역 출신 여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수준을 높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가구 요인에서, 첫째, 선행연구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와 규모는 결혼한 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Kahanec & Mendola, 2007; 박재규, 2013), 자녀를 돌볼 가족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결혼한 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연구를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유치원 등 시설보다는 시부모 등 가족의 지원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이 시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자녀양육지원과 가사활동과 같은 다른 지지를 받음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어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을 높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한편으로 유치원 등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학부모 활동과 같은 자녀교육에 관련된 요구의 증가로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배우자 소득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박재규, 2010), 본 연구에서 배우자 소득은 중국, 일본, 베트남 출신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계 중국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는 유의미한 지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모든 결혼이민여성의 집단에서 배우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구의 2차적 수입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요인에서 배우자의 성역할태도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지표인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성역할태도가 민족집단별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즉, 배우자가 남녀의 공사역할 구분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일수록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녀의 공사역할의 구분에 대한 태도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인적 자본을 고려한 맞춤형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평균 연령, 평균 교육수준이 민족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 교육수준을 고려한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한국어 수준, 일자리 교육 및 연계는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출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 연령과 고졸 중심으로 하되, 중국 출신 여성은 한국 국적 취득,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그리고 한국어수준을 높이는 취업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의 경우, 일자리 교육 및 연계를 강화하는 취업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 출신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 연령, 대졸 중심으로 한국 국적 취득율을 높이고, 일자리 교육 및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어수준이 높이는 방향으로의 취업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34세 이하 연령을 중심으로 하되, 베트남 여성은 중졸 중심의, 필리핀 출신 여성은 고졸과 대졸 중심의 한국 국적 취득율을 높이고,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경험을 확대하고, 한국어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업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내국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자녀양육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녀 연령대에 맞추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이하 연령대의 자녀의 경우 부모처럼 맡아서 키워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부모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방과 후 교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에 자녀들이 안심하고 있을 만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는 모든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남녀의 공사역할 구분이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이러한 인식은 다문화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좀 더 가부장적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로 볼 때, 국제결혼과정에서 배우자의 성역할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선 남녀의 공사역할구분,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각 국가별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 의견차이가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부부간 의사소통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결혼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외국인한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조건이 민족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료가 대상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자료를 적절하게 추출해 내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제한이 있다.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의 이주, 교육, 노동, 가족 관계를 아우르는 통합된 조사 자료의 개발과 이에 기초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후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 강혜정, 이규용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2). 49-73.
- 김민정 (2002). 필리핀 친족의 양변성과 집단 만들기. 비교문화연구. 8(2). 3-36.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 2010-06.
- 박능후, 선남이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민족연구. 41. 120-144.
- 박미은, 신희정, 이미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3(4). 213-244.
- 박재규 (2011).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및 취업지원정책 연구. 전북다문화포럼 자료집.
- 박재규 (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5(1). 5-33.
- 박희 (2002). 필리핀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 아시아연구. 5(1). 123-158.
- 배경희, 서연숙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4). 183-202.
- 안수영, 임우연 (2011). 대전지역 결혼이민자의 일 경험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37(3). 49-69.
- 양순미 (20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9-345.
- 양인숙, 김선훈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자본 및 사회 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237-266.
- 양인숙, 민무숙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 이은희, 이은미 (2012).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 66-72.
- 이재열 (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5-44.
- 이태정, 이용수, 신현규, 김명수 (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21-44.
- 장서영, 이로미, 장인자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 분석. 여성연구. 78(1). 77-117.
- 조혜선 (200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1). 145-169.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허윤선 (2013). 성평등과 경제발전, 동아시아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0(2). 1-27.

- Blau, F. D., Kahn, L.M. & Papps, K. L. (2011). Gender, source country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assimilation among im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1), 43-58.
- Boyd, M. (1982). Sex differences in the Canadian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19, 1-28.
- Chiswick, B. R. & Miller, P. W. (1988). Earning in Canada: the roles of immigrant generation, French ethnicity, and language.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6, 183-228.
- Chiswick, B. R. & Miller, P. W. (2008). Modeling immigrants's language proficiency. In: Chiswick, B.R.(Ed.), *Immigration: trends, consequences, and prospects for the United States*, Elsevier, Amsterdam, 75-128.
- Collins, P.H. (1988). Shifting the center: Race, class, and feminist theorizing about motherhood. (ed.) by Glenn, E.N., Chang, G. & Forcey, L. R., *Mothering: 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New York: Routledge, 45-66.
- DeVoretz, D.J. & Pivnenko, S. (2008). The economic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anadian citizenship ascension. (eds) by Bevelander, P. & DeVoretz, D.J. *The economics of citizenship*. Malmo, Sweden, Malmo University, 23-61.
- Duleep, H.O. & Sanders, S. (1993). The decision to work by married immigrant wome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6, 677-690
- Evans, M.D.R. & Lukic, T. (1998). The impact of resources and family-level cultural practices on immigrant women's workforce participation. *Gender issues* 16, 52-83.
- Evans, M.D.R. (1996).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Australia: Recent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13(1), 67-92.
- Felmlee, D.H. (1995). Causes and consequences of women's employment discontinuity, 1967-1973. *Work and occupations*, 22, 167-87.
- Ferrer, A. (2015). Are married immigrant women secondary workers? *IZA world of labor*, 119, 1-10.
- Foroutan, Y. (2008) Migration differentials in women's market employment: An empirical and multi-cultura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 675-703
- Frank, K. & Hou, F. (2013). Cultural influences across time and space: Do source-country gender roles affect immigrant women's paid and unpaid labour activity? *Analytical studies branch research paper series*, 349.
- Gathmann, C. (2015). Naturalization and citizenship: Who benefits? *IZA world of labor*, 125, 1-10.
- Gilbertson, G.A. (1995). Women's labor and enclave employment: The case of Dominican and Colombian women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3), 257-670.
- Heath, A.F. Rotheron, C. & Kilpi, E. (2008). The second generation in western europe: education, un-

- employ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 211-35.
- Husted, L., Nielsen, H.S., Rosholm, M. & Smith, N. (2001) Employment and wage assimilation of male first-generation immigrants in Denmark.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2: 39-71
- Kahanec, M. & Mendola, M. (2007). Social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status of ethnic minorities in Britain. *Working papers*, 125. Univ. of Milano-Bicocca, Dep. of Economics.
- Lee S., Zhou, H. & Kim, Y. (2014).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Asian immigrant women: Findings from the 2007 American community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3. 296-308.
- Long, J. (1980).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earnings: Some evidence for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3). 620-29.
- MacPherson, D. & Stewart, J. (1989).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arnings profile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29. 57-72.
- Perez, L. (2001). Growing up Cuban in Miami: Immigration, the enclave, and new generations. (eds) by Rumbaut, R.G. & Portes, A. *Ethnicities: children of immigrants in Americ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and Russell Sage Foundation, 91-125.
- Portes, A. & Rumbaut, R.G. (2001). *Legacies and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Los Angeles,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Read, J.G. (2004). Cultural influences on immigrant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Arab-American cas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 52-77.
- Rebhun, U. (2008). A double disadvantage? Immigration,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in Israel.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4(1). 87-113.
- Reimers, C. (1985). Cultural differenc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married wome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51-255.
- Shamsuddin, A. (1998). Labour supply of immigrant women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2). 105-133.
- Stier, H. (1991). Immigrant women go to work: Analysis of immigrant wives' labor supply for six Asian groups. *Social Science Quarterly*. 72. 67-82.
- Stier, H. & Tienda, M. (1992). Family, work and women: The labor supply of Hispanic immigrant wiv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 1291-1313.
- VandenHeuvel A. & Wooden, M. (1996). *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 immigrant women and part-time work*.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Australia.
- Zhou, M. (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975-1008.

A study on the factor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differences among five ethnic groups

Hyun-suk Kim*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different predictor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Chinese, Korean-Chinese, Japanese, Vietnamese, Filipino.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work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2012 national survey on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analyzed by Chi-square test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ur findings indicated that age, education, nationality, occupation education experiences, Korean proficiency, children under age 9 and main carers, husband income and husband attitudes about gender ro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certain marriage migrant women groups. Given those finding,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ies for promotion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Key Words: marriage migrant women, labor market participation, human capital, household characteristics, differences among ethnic groups

◆ 2015.04.29. 접수 / 2015.05.18. 1차 수정 / 2015.06.08. 게재 확정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 Studies, Dong-A University(illsuk94@hanmail.net).